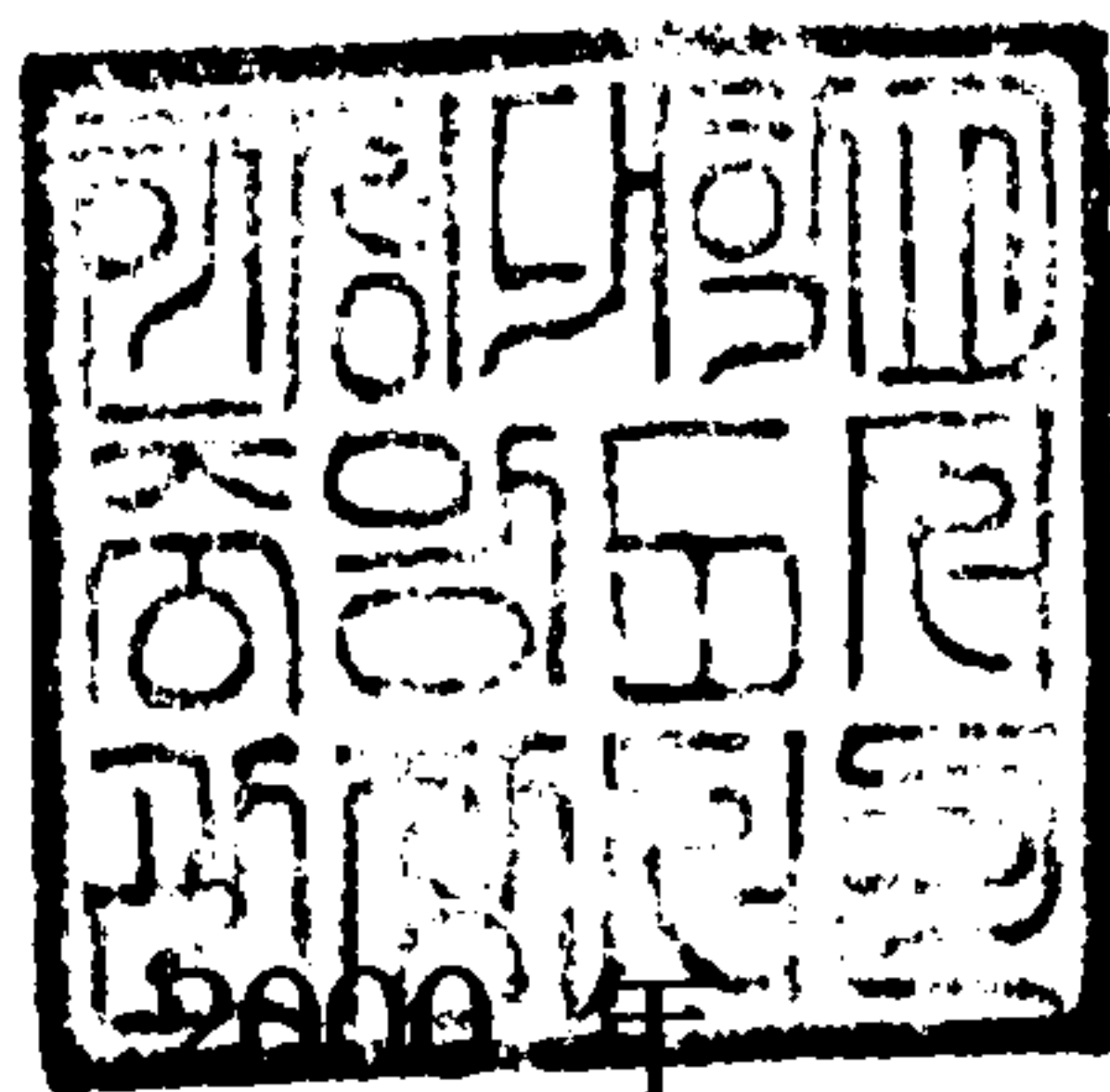


碩 士 學 位 論 文

障 碍 人 에 대 한 認 識 態 度 研 究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李 學 範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羅 雲 煥

障 碍 人 에 대 한 認 識 態 度 研 究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Focused on the Social Workers in Kangsuh-ku, Seoul-

2000年 8月 日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李 學 範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羅 雲 煥

障 碍 人 에 대 한 認 識 態 度 研 究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Focused on the Social Workers in Kangsuh-ku, Seoul-

위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0年 8月 日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李 學 範

李學範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年 8月 日

審査委員長_____⑩

審査委員_____⑩

審査委員_____⑩

目 次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8
1.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8
2.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방법	8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제 1 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고찰	10
1. 인식에 대한 개념	10
2.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정	12
3. 인식이 갖는 특성	13
4. 각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19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태도 고찰	26
1. 태도의 기능	28
2. 태도의 개념과 형성	30
3.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4. 태도 개선의 필요성	31
5.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선행연구	31
6.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의 태도	34
제 3 장 결과 및 해석	37
제 1 절 장애인에 대한 인식	37

1.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37
2.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준	38
3. 각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39
4. 향후 장애인이 될 가능성	42
5. 장애인 문제해결 위한 변화주체	43
6. 장애인 이미지	44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경험 및 태도	46
1. 장애인을 도와준 경험	46
2. 장애의 선천성에 대한 견해	48
3.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평가	49
제 3 절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	50
1.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지 여부	50
2.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필요 여부	51
3. 미래의 장애인 대책 전망	51
4. 바람직한 장애 아동의 교육방법	53
5. 바람직한 장애인 보호의 주체	54
6. 장애인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유	55
제 4 장 결 론	56
參 考 文 獻	63
ABSTRACT	67
부록(설문지)	71

表 目 次

<표 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천 3단계	12
<표 2>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38
<표 3>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준에 대한 평가	39
<표 4-1>	장애인의 취직, 월급, 승진 등의 차별여부	40
<표 4-2>	장애인의 예술분야 활동정도	41
<표 4-3>	장애인이 사회 각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도	42
<표 5>	향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43
<표 6>	장애인 문제해결 위한 변화주체	44
<표 7>	장애인 이미지	45
<표 8-1>	버스, 지하철 등에서 자리 양보	47
<표 8-2>	모금이나 기부	47
<표 8-3>	횡단보도/계단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	48
<표 9>	장애의 선천성에 대한 견해	49
<표 10>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평가	50
<표 11 >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지 여부	50
<표 12 >	미래의 장애인 대책 전망	52
<표 13 >	바람직한 장애아동의 교육 방법	53
<표 14>	장애인의 보호주체	54
<표 15>	장애인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유	5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해진 환경요소들이 유발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재가 장애인 1,029천여명과 시설장애인 약 24천명을 합하여 총 1,05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전 인구의 2.35%이며, 재가 장애인이 9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종류별로는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로 분류했을 때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언어 장애의 순이며,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19.1%이다.¹⁾

우리나라의 장애인 규모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발생 예방이 가능한 출생후 원인²⁾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산업발달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 환경오염의 심화, 각종 질병, 교통사고, 그리고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발달로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 즉,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환 등에 의한 장애가 더 증가한다고 볼 때 장애의 조기에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재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 장애인실태조사보고,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5

2) 지체장애는 외상, 순환기장애, 퇴행성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95.0%, 시각장애는 수노한기 장애 및 외상 93.7%, 청각장애는 농인성과 중이염등 감염 93.1%, 언어장애는 순환기 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해 77.1%가 발생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 장애인 실태조사보고,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7

활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용성을 장애로부터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은 장애인 자신의 잠재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자기실현 욕구에 대한 기능을 최고 수준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³⁾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있으며 그 존엄성이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 사회에서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다.

재활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⁴⁾하며, 이는 잔존능력을 통합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장애보다 현존하는 능력에 집중함으로써 최대한의 잠재력을 고무, 적용시키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재활의 목적과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⁵⁾

그러므로 장애인의 전인재활을 위해서는 장애를 초기에 발견하여 의료적 치료와 교육적 재활을 제공해줌으로써 직업적 재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들의 사회참여와 통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⁶⁾

그러나 현 실정에 따르면, 장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현존하고 있으며⁷⁾,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 등을 무시 한 채 일반인들 위주로 생활

3) 엄익곤, "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재활을 위한 성격 및 가치관 분석", 대구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3.

4) H. A, Rusk., *Rehabilitation medicine*, Saint Louis, The C. V Mosby Co., 1997, p.626.

5) M.A., Smolock, "The Nurse's Role in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 child",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5, No.3, 1970, p.413, Rothberg, J.S., "Symposium on chronic disease and Rehabilitation",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1, No.3, 1996, p.353 : 탁영란, "신체장애아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1.에서 재인용.

6) 성희선, "장애자의 정신재활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1-2.

7) 임연실, "지체장애학생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재활동기와의 관계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4.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 현실에서 장애인은 천시, 멸시,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전한 사회 참여나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⁸⁾

특히 사회계층 가운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미성숙기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 더구나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별 받음으로서 낙인이 찍히고 사회의 주류적 관심과 국가의 교육 및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에서 소외 받아온 장애인은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에 따라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도 되고 그렇지 못하게도 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⁹⁾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논리적인 토론이나 정보의 결과로써 변화되는 증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 특히 이미 형성중에 있는 태도에 대한 논쟁의 주제들은 강화되고 동결된다는 주장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편견이 인식되지 않는 한, 차별적인 행동은 지속되며 이러한 인식이 불공정한 처우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처우를 최대화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¹⁰⁾

장애인 재활의 최종목표를 사회통합에 둔다면, 장애인의 사회와 건강인의 사회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현상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지향하는, 모두가 이해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에서의 참재활을 이루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8) 허혜영, "척추장애자의 재활에 있어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사회산업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2.

9) 신현순, "장애자에 대한 인식", 「성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85, p.431.

10) George Handerson, Willie V. Bryan, Psychsocial Aspects of Disability,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4, pp.31-44.

종전까지 우리사회에 고정 관념으로 전수되어 내려온 이들에 대한 편견과 경시 그리고 막연한 동정의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대하여 온 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수그룹의 일부라는 관념으로 전환시켜,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일반인의 인식개선과 긍정적 태도 수립이 요청된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장애인 본인의 재활의지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이 일반 시민과 더불어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상대 개념인 정상인 즉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¹⁾

지금까지 장애인재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인 개인의 자아개념¹²⁾에만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일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¹³⁾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특수교육의 전통

11) 박연수, "200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와 재활정책", (제1회 재활심포지움보고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1992, p.16.

12) 장애인의 자아개념에 관한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강순희, "지체장애 학생의 기능적, 독립적, 사회계층 및 자아개념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② 김봉환, "지체부자유 학생의 교육기능, 통제의 소재 및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③ 김정희, "소아마비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④ 권순미, "지체부자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⑤ 차현미, "지체장애 청소년의 가정 결속력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⑥ 김은진, "지체장애 청소년의 레크레이션 활동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23.

13) 장애아에 대한 태도의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Honach Livneh, The Disability Factor scale-general : second-order factor structure, 1983. ② Handler A, & Austin K, Improving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 Their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46, 1980. ③ T.W.Jones, V.M. Sowell, J.K.Jone, & L.G.Butler, Changing Children's Perception of Handicapped people, Exceptional Children 47, 1981. ④ B.G Esposito, & W.J.Peach,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49, 1983. ⑤ 박성애, "신체장애아에 대한 정상아동의 태도변화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7. ⑥ 김일명, "정박아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5.

적인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교육의 성과를 위해 정상아동의 장애아에 대한 수용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에서도 장애아와의 접촉이 장애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청자¹⁴⁾ 류수경¹⁵⁾의 연구로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며 특히 청장년층은 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정(家庭)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는 사회, 가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활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¹⁶⁾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이 요청된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적응한다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장애의 개념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인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보며,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를 파악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며 장애인 재활에 있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 참여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적극적인 자아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진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14) 이청자, "장애자고용에 대한 기업인의 태도조사", 「재활연구」, 삼육재활원, 1981, p.28.

15) 류수경, "장애동료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7.

16) R.H. Goldens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Handbook, N.Y. : McGrawHill, Inc., 1978, p.37 : 임연실, "지체장애학생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재활동기와의 관계연구",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5.에서 재인용.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의, 접촉 및 장애인 관련 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읍·면 동사무소나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과의 편안한 접촉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추어볼 때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에 앞서 장애 그 자체를 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직접적인 사실이나 경험에 의한 객관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지의 장애에 대한 피상적인 판단이나 주관적 몰이해로 근거하는 데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장애인관은 객관적으로는 멸시와 조롱, 주관적으로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⁷⁾

따라서 장애란 한 개인이 나타내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는 가치판단이다.¹⁸⁾

장애인에 비롯되는 시설 건립시 인근 주민들의 이유 없는 건립 반대, 인권 유린, 열악한 장애인 시설 여건 등을 보면서 인간의 가치가 돈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삶은 인간 존엄과 평등과는 무관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존엄하므로 인권이 근거지워질 수 있고,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통하여 인간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다.

17) 허혜영, “척추장애자의 재활에 있어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집단사회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2.

18) 송준만, “생명과 장애인”, 「생명과 장애인」,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제11회 세미나 자료집, 1995, p. 24.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인간행위의 평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기형아이든 정상인이든 묻지 않고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가리키는 말이다.¹⁹⁾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삶의 실태는 일반적 삶의 형태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으며, 과거 폐쇄적 시설로부터 폐쇄된 지역사회로의 이동뿐이었다고 비판되어 질 수 있다.

장애인은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닌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차이를 갖지 않으며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한 차이에서 생기는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함을 말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사회안에서 더불어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써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불편없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목적이 '사회적 통합'이라 한다면 더우기 인식과 태도 문제는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일반국민의 인식과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수렴 비교해서 최일선에서 장애인과 접촉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인식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일반인들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민 인식 변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19) 박종대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사회 공통선의 실현을 위한 모색”,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4, 1995., p.3.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연구방법은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에서 1997년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일반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이 척도는 이미 지난 1985년, 1990년 세계 각국에서 국민들의 인식·태도 조사시 사용한 척도이며, 우리나라 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인식·태도 조사시 사용한 척도로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구청과 22개 동사무소 35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10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였으며 각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총 145부를 배부해서 121부가 우편으로 회수되어 83.4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통계처리가 곤란한 1부를 제외한 120부가 본 연구의 최종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분석은 사회과학조사방법시 활용하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는 1997년 갤럽조사연구소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반인과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견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전체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비교선행연구가 1997년에 이루어졌음으로, 조사시점, 방법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결과에 나타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고찰

1. 인식에 대한 개념

인식이란 어떤 대상을 감지하고 이를 분별, 판단하는 의식의 작용이며, 또는 이성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과 사물간의 관계에 관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로서, 이러한 의미의 인식기능은 인생의 본질이나 가치를 탐구하고 자기존재의 당위성이나 행위의 타당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 의식하고 지각하는 작용의 총칭이라고 하며 ‘행동’이란 생활체라 행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동아출판사 국어사전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며, 장애인에 대한 행동은 일반인과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장애인을 보고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바로 인식이 밖으로 표출되면 행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 생활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적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던 장애인이 다른 일반인들에게 바르게 이해되기란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해 형성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의 변화를 시도함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문제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형태가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장애인의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과 지식은 장애인을 연구하고 돕는 전문인에 의해서 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사회엘리트들이 장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⁰⁾

그러나 이 전문인들 역시 장애인 문제에 있어 편협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인식이든지 특정한 환경 즉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개체와의 관련속에서 이루어진다.

문동팔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에게만 맞춰진 초점을 근거로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의해 형성되고 일반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²¹⁾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 생활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적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문제에 있어서도 현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형태가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장애인의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과 지식은 장애인을 연구하고 돕는 전문인에 의해서 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사회 엘리트들이 장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 이익섭, 「한국장애자 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 지역지도자 교육 자료집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90, p.27.

21) 운동팔, “장애인의 이미지 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사자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5.

그러나 이 전문인들 역시 장애인 문제에 있어 편협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인식이든지 특정한 환경 즉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개체와의 관련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인식이 어떤 관계성으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에게만 맞춰진 초점을 근거로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의해 형성되고 일반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작곡가와 작사가가 노래를 만들어 가수가 전달하고, 극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연기자들이 표현하듯이 장애인복지종사자들이 만든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사회 일반인들은 전달받아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된 것들은 계속 확산되어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발전은 인식의 내용과 초점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로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천 3단계

인식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1. 시대	전근대	근대 - 현대	현대 - 미래
2. 산업	농업	기술산업	전자산업
3. 인식	불구자	장애자	정상화
4. 인식의 초점	Stigma	신체적 장애	사회적 장애
5. 신분	하층계급	2차계급	일반화
6. 사회참여	능동적	수동적	사회통합적
7. 현장	지역사회	격리수용	지역사회
8. 직업	전문업-복술, 악사	특수업	일반업

출처 : 사회복지, '88 겨울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p.93.

제 1단계에서 장애인은 불구자로 인식되었으며 사회 하층 신분으로 낙인과 함께 억압받는 존재였다. 민족이나 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이때는 다반사였다. 흥미로운 것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었으며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 2 단계에서는 기술산업화의 영향으로 물질적 풍요는 나타났지만 능력을 중시한 가치관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리가 나타났다.

바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점차 격리되었고 장애인들의 주거공간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수용시설이나 특수병원에서 살게되었으며, “장애자”라는 제 2 의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인의 출현과 더불어 장애인은 모든 것을 이 전문인들에게 맡기게 되는 수동적 사회참여 현상을 나타냈다.

제 3 단계에서는 사회의 재통합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재인식되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를 통해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개념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사회적 생활중심 개념으로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에의 참여가 도모되고 전자, 정보산업의 도움으로 환경조절 기능의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고 있다.

3. 인식이 갖는 특성

인식은 태도를 결정하는 한 구성요소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인간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과의 의사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가 결정되며,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기도 하며, 또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기도 한다.²²⁾

그런데 태도는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정책지향성 등의 구조로 나누기도 하고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측면으로 나누기도 한다.²³⁾

또 태도는 인식적인 면, 정서적인 면, 행동적인 면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인식적 측면은 인간의 사고작용과 관련 있는 태도영역이며, 정서적인 면은 “좋다”, “나쁘다”는 감정적인 태도를 뜻하고, 의견 등 동작에 관련된 태도영역 등이 있다. 한편 인식은 좁은 의미로는 태도의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인식을 태도 그 자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인식과 인지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인식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아는 작용, 즉 외적, 내적 경험을 반성하며 이를 자기의 지식 체계로 섭취하는 전계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식은 정확한 정보나 지식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쳐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식이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1) 부정적인 이론

(1) 상품이론(Commodity theory)

현대산업 사회에서의 각 개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각기의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22) 광재복,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식과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10.

23)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이론」, 서울: 법문사, 1979, p.67.

24) 이익섭, “한국장애인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 지역지도자교육자료집,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90, pp.2-3.

가치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산은 그 개인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나아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은 종종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며 현대사회는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됨으로 자연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서 장애인들은 점점 소외되게 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불문율에 적용된다. 경제 상태가 좋을 때에 비로소 고용이 가능하고 나쁠 때에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²⁵⁾

(2) 편견이론(Prejudice theory)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온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적 선입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²⁶⁾ 이는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반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게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인식형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선과 정의는 아름다움으로 악과 불의는 추악함으로 묘사되는 우리의 문

25) 상계서, p.3.

26) 상계서, p.3.

화권 속에서 육체적 결함은 흔히 악과 불의로 나타난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다시 불평등이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한다.²⁷⁾

Allport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antilocution), 회피(avoidance), 차별(discrimination),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잔혹 살상행위로 설명하고 있다.²⁸⁾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아직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가볍게 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별개의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편견은 성장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과학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이성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 되서는 안되는데 감정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을 찬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것이다.²⁹⁾

(3) 분리 이론(Isolation theory)

장애인들이 일반세계와의 접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이 갖는 실망이 적고 장애인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는 주변 일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이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가 사회가 상호

27) 상계서, p.3.

28)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1954, Addison-wesley pub.co. pp.14-15.

29) 민은식, “장애자의 사회적 재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민은식선생유고집), 1990, pp. 231-232.

간에 분리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분리의 결정은 장애인에 의해서 먼저 취해질 수도 있고 또한 사회에 의해서 먼저 시작될 수도 있다.³⁰⁾

즉 장애인은 자기의 ego가 변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동기가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고자 먼저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 현대적인 조건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져 전반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먼저 사회가 장애인으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¹⁾

(4) 재활 이론(Rehabilitation theory)

이는 장애인을 치료하고 훈련함으로써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을 비정상의 상태로 보고 이 비정상을 가능한 한 교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아왔다는 것이다.³²⁾

(5) 정책부재이론

국가 정책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어떤 문제는 의도적으로 정책적 수립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다.

30) 이익섭, 전개서, p.3.

31) 상계서, p.3

32) 상계서, p.4.

장애인 복지가 타 복지 영역에 비해 정치적 비교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 보다 파악하였음에도 아무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³³⁾

2) 긍정적 이론

(1)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이 이론은 복지제도 발달이 산업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귀결이며, 따라서 모든 산업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자체의 복지제도를 수립해 나가게 된다는 이론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복지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수렴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수준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곧 발전적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이론이 산업화와 경제적 이외의 정치적 요소를 간과하였다는 결함은 있지만 경제력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복지의 기능적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이 이론은 한 국가의 복지가 인접 국가 혹은 관계가 긴밀한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3) 상게서, p.4.

다시 말해 어떠한 국가의 모범적 복지제도가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는 국제 외교 차원에서 볼 때 쉽게 그 장점과 약점이 노출될 소지가 많은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라는 점에서 장애인 복지에도 후진성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고, UN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확산 이론인 것이다.

4. 각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요인은 어느 한 사고방식에 연유한다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시대적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규태³⁴⁾는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요인으로 보편인간의 지향, 완전인간의 지향, 욕구불만의 전이, 초자아의 결여, 전통복지법의 해이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문화인류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규태에 의하면 한국인의 완전의식은 매우 강하다고 한다.

이를테면 밥상은 항상 고루고루 한상이 차려져야 미덕으로 여긴다든지, 전과목을 고루 잘하는 자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그 예이다.

34) 이규태,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 복지사업재단, 1981, pp. 54-62.

이와 같은 완전주의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완전’의 결여인 불구에 대해 비가치화하고 경멸하며 편견을 갖게 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동일성 가운데 하나로서 이질성을 배척하고 동질 의식이 별나게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동질 의식이 강할수록 동질적이고 평균적인 보편성의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며 평균에서 이탈된 이질성의 것일수록 비가치화 한다.

따라서 평균인간, 동질인간, 보편인간을 지향하게 되며 그 기준에서 이탈될수록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이 밖에 장애인에 대한 미신(supersition), 명칭붙임(labeling), 또는 역사적 관습 등이 부정적 장애인관의 형성요인이 된다.³⁵⁾

이규태³⁶⁾는 한국의 문학작품이나 속담 속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경멸당하고 열등시 되었던가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고, 장애인을 부르는 한국말에서도 멸시하는 요소가完전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장애를 대상으로 한 88개의 속담에서 다소나마 긍정적 이미지를 풍긴 속담은 “장모는 사위가 곰보라도 예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애꾸라도 예뻐한다”는 것과, 몹시 소중한 것을 빗대는 “열 소경에 한 막대”라는 것 두 편뿐이라고 했다.

김선풍³⁷⁾은 장애인을 소재로 한 속담에 대해서 “소경죽이고 살인 빗 갠다”. “언청이 아가리에 콩가루”, 앓은뱅이 용쓰나마나“등의 예를 들면서, 고귀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사고와 신분차를 따지는 계급주의에서 이와 같은 사고현상이 시작되었으며, 하류의 천민일수록 인간적 대우는 고사하고, 다만 생산에의 수단과 도구의 구실만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35) 송용석,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전주우석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6-7.

36) 이규태,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 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pp.52-54.

37) 김선풍, 「속담, 우리민속문화의 이해」, 서울 : 개문사, 1980, pp.259-262.

안태윤³⁸⁾은 속담을 장애인의 성격과 인권을 나타내는 2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장애인들은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미천한 인간, 미움의 대상, 무능한 인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정대의 연구³⁹⁾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연상되는 장애인의 유형을 나타내었는데, 첫 번째 연상을 기준으로 보면 정신박약자가 장애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 있지만, 세 번째 연상까지의 빈도를 종합하면 맹인, 정박자, 절름발이, 병어리 순으로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을 신체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손상(impairment)이나 신체의 일부, 또는 기능의 일부가 구비되지 않은 불구(disability)를 갖고 있는 자로 간주하는, 즉 외모상 나타난 불구나 손상을 장애인으로 연상하고 있는 일반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생산력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모에서의 선입관이 편견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도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의 일반적 결정에 의해 해야하는지의 여부와 현존하는 관습적 장애인관에 대한 태도를 상관시켜 본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76.1%의 응답자를 제외한 23.9%는 부정적 장애인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⁴⁰⁾

일방적 시혜에 찬성한 응답자의 61.1%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은 장애인에 대한 모순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들은 장애인에 대한 원칙적 의식과 구체적 의식이 별도

38) 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논문집」, 제2집, 1969, p.81.

39) 손정대, 전제서, pp. 29-51.

40) 이종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 성심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7.

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 경향을 말하고 있다.⁴¹⁾

인간의 인권이 동등하다는데 바탕을 두고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일반인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근로권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긍정적 자세를 보인 응답자의 24.5%가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발달권 보장의 한 방법인 특수교육시설을 위한 국가의 예산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는데 82.4%,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에 15.3%, 투자가치가 없다는데 2.1%가 응답했다.⁴²⁾

장애인들의 근로권을 인정하려는 의식을 살펴보면, 절대 찬성이나, 찬성한다는 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긍정적으로 보는 성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여기서는 일관성 있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권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비율이 생존권이나 발달권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비율보다 낮은 까닭은 근로권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며, 응답자들과 현실적으로 가까운 이야기, 즉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남의 문제로 장애인관과, 응답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속의 권리주체자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의식이 남아있음을 짐작케 한다.

관습적 장애인관을 가끔 생각하면서 장애 가능성도 생각한다는데 월등

41) 상계서, p.8.

42) 상계서, p.8.

한 응답 빈도가 몰린 것으로 보아, 부정적 응답을 확실하게 할 수 없을 때 쉽게 선택하게 되는 약한 긍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 장애인들의 고통을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사회의식이 형성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국장애자전도협회의 연구⁴³⁾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매우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제도 속에서의 대우 역시 83%가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봉사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직접 도와준 사례를 묻은 응답엔 직접적인 헌신보다, 경제적인 도움이나, 자리양보 내지 손을 잡아주는 소극적인 사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형식적인 행위, 소극적인 행동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에는 약 80%정도가 융통성 있는 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에 이렇다할 교육의 소신은 피력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경희의 연구⁴⁴⁾에서 부모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로는 주위에서 자녀에 대해 손가락질한다. 사회의 통념에 화가 난다.

사회가 정신지체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정신지체아 가족의 아픔에 무관심함을 지적한 것처럼,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옛부터 멸시를 받으며 무능력자로 취급되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유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왔다.

43) "장애자를 보는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한국장애자전도협회 1994, pp.5-14.

44) 이경희, "정신박약아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41-44.

이것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 부정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관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서구의 역사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의식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체의 미와 추에 기준을 두고 장애인을 산천에 방치했고, 대철인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철학자마저 농아자는 사상을 운반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제외시켰다.

로마제국은 건국 초기때 맹인이나 농아자를 강에 버려서 익사케 하는 등의 학대를 정상인의 권리로 인정했고, 중국은 농아자를 이상한 불구자로 생각하며, 맹인은 대부분 버려지거나 복술 또는 음악을 하며 유랑걸식하는 생활을 하게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⁴⁵⁾

이와 같이 장애인은 조롱이나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회 편견속에서 생활을 했다.

한편 히브리 민족은 Talmud에서 농아자나 정신지체인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아이들과 같이 분류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관은 장애인의 출현이 하나님의 섭리아래 되어진 것이라고 하여 장애인에게 억울한 송사를 금하고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 하여 긍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예수 당시나 초기기독교에 있어서는 귀신이 들려서 병어리나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했고, 초대교회의 교

45) 이태영, “권리로 추구되어야 할 심신장애자의 복지문제”, 「제8회 전국사회사업가대회 세미나자료집」, 1980, pp.42-45.

부인 Augustinus는 로마서 제 10장 제17절을 근거로 사랑이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 말을 소유하지 아니한 농아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종교개혁대에 이르기까지 농아자는 교회의 영혼구제사업에서 제외되었다.⁴⁶⁾ 그리고 로마민족은 그 민족초기에 맹자나 농아자를 티베르강에 버려서 익사하게도 하였으며 장애인을 천대하는 것을 마치 정상인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6세기의 Justinianus 법전에서도 생래성(生來性)의 농아자는 법적인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금치산자로 규정하여 후견인을 두어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⁴⁷⁾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는 편견과 부정적 태도의 장애인관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었고,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으로 인간성이 강조되고 인권존중사상이 대두되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사상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함께 "나는 다행히도 그와 같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자기 만족감은 자기 삶이 더 가치 있다는 비교가치관으로 전제된 관습적 장애인관이 겉모습만 달리한 채 남아있다.

다시 말한다면, 장애인을 개인의 선심이나, 위정자의 선정을 과시하기 위한 단순한 대상으로 보는 자선적, 자혜적 입장, 장애인을 사회적 부적 인자로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에 제한을 두려는 사회 방위적 입장, 능력위주의 인적자원 개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대책을 능력차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회 효용적 입장 등은 현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의식이다.

46) 상계서, p.5.

47) 상계서, pp.4-5.

이같은 장애인 처우는 그들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제삼자의 일방적인 시혜대상으로 보는데서 나온 태도이다.

이같은 태도들은 소극적인 순응주의와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시키는 격리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⁴⁸⁾

서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고대 그리스나 중세 근세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등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게 나타났고, 근세 이후 르네상스 운동 계기로 장애인을 인간의 한 사람으로 보는 인권주의 의식이 싹트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다.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태도 고찰

태도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Thomas와 Znaiecki는 “태도(attitude)는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가능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언제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⁹⁾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는 태도의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태도는 행위의 근거가 되고 또 행위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태도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는 것이다.

Allport는 태도란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되고 관련된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 혹은 역동적 방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⁵⁰⁾

Regenberg는 태도를 어떤 대상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정서와 정서적

48) 이태영, “올바른 장애자복지관과 재활대책”, 「제2회 장애자복지세미나」, 한국어린이재단 전북지부, 1983, p.19.

49) 전병재,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1978, pp.320-321.

50) 고영복, 「현대심리학」, 서울 : 법문사, 1973, p.65.

반응이라고 하였고, 그 구성요소를 세 가지 요인 즉,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이상을 종합 정리하면 태도는 다른 사람, 사회적 대상과 환경적 사건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험 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태도 대상을 접촉했을 때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⁵²⁾

구체적으로 태도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³⁾

① 태도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며, ② 태도는 사회적 학습이다. 태도는 집, 학교, 사회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획득되고, ③ 특정대상에 대하여 특정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의 태세를 가지고 있다. ④ 태도는 정의적이다.

즉, 태도의 정의적 측면은 개인의 선호경향으로서 보여진다. ⑤ 태도는 강도에 있어서 다양하다.

한 대상에 대한 태도의 강도는 행동을 유발하기에 분할 정도로 강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⑥ 태도는 시간 차원을 갖는다. 태도는 현상상에 적합하고 다른 시간에는 거의 쓸모 없을 수 있으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⑦ 태도는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다. 태도는 개인의 일생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⑧ 태도는 복합적이다. 태도는 개인의 다소 기능 지각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맥락의 부분이다. ⑨ 태도는 평가이다. 태도는 호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장래 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⑩ 태도는 추론된다. 태도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되며 관찰자에 의해 내려진 추론은 본인의 내적인 선택과 일치하지

51) M. J. Rosenberg,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 of Social Psychology, 1956, 53, 367 : 박성애, "신체장애아에 대한 정상아동의 태도변화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4.에서 재인용.

52) 광지영,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 조사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53) 정우현, 「교육사회학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pp.305-306.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는 올바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에서 탈피함이 일반적이다.

1. 태도의 기능

태도의 기능⁵⁴⁾은 행동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적응적 기능(Adjustment function)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동시에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태도를 형성변용한다. 보상을 주는 대상에는 호의적으로, 형벌이 가해지는 대상에는 반감적으로 태도를 갖는다. 따라서 태도는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돕고 바람직하지 못한 목표를 피하고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려는 수단이며 대상의 유용성에 대한 현재나 과거의 지각에 따라 형성된다.

2) 자아방어기능(Ego-defensive function)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위협에 대해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각 개인의 태도는 대상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각자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령 불안한 사람은 타자를 멸시하는 편견을 갖는 경우이다.

3) 가치표출기능(Value-expressive function)

내면화된 중핵적 가치나 이상적 자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기능이다. 민주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그것을 옹호하는 행동에 참여한다.

54) 고영복, 전게서, pp.67-68.

4) 지식기능(Knowledge function)

태도대상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하여 외적 환경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지구조를 작성하는 기능이다.

개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상반되는 경험을 가지면 일관성을 갖기 위해 그것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네 가지 태도의 특성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어느 특정인종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자아방어적인 것일수도 있고 자기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한 태도는 한가지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⁵⁵⁾

이와 같은 태도의 기능은 태도의 변용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Kelman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도형성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태도의 기능을 다루고 있다.

즉 ①동의 ② 동일시 ③ 내면화인데 동의는 영향자의 상벌력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동일시는 영향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며 내면화는 자기가치와 일치함으로써 일어난다고 한다. 이것은 태도가 태도대상에 대하여 갖는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⁵⁶⁾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조사는 사회안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모색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55) 박성애, 진게서, p. 11.

56) 고영복, 진게서, p. 68.

2. 태도의 개념과 형성

지금까지 발표된 태도연구에 의하면 태도의 개념 안에 인식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발표된 태도에 관한 이론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태도란 심리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경향이다. 또 태도란 한 개인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사물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갖는 찬동 혹은 불찬동의 경향이다.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는 태도의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태도는 행위의 근거가 되고, 또 행위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태도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는 것이다. 태도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성숙된 것이 아니며 자아인식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는 3-4세 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경험을 통해 점차 학습되는 것이다.

3.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의 태도변화에 관한 이론들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설득커뮤니케이션, 적극적 참여, 사회적 환경 등 3종류의 경험들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한편,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여러 가지 성격특성에 관련되거나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오는 경험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증감될 수 있는 것이다.⁵⁷⁾

57) 홍대식, “태도변화의 원리”, 「연구보고 제 39집」, 한국교육개발원, 1976, pp.10-13.

4. 태도 개선의 필요성

Gottlieb, Corman & Curci(1986)에 의하면 태도는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벽이 생기기 전에 피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고정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과 태도를 초기에 형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재가 없다면 일반 아동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게 차별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장애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일반아동의 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왔으나 실제로 태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5.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선행연구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규태⁵⁸⁾는 한국인의 전통적 장애인관은 객관적으로는 멸시와 조롱, 주관적으로는 열등감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정재권, 김동연⁵⁹⁾은 ‘한국인의 장애인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예술적 능력이나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태아가 장애아일 경우 출산의사에 대한 반응은 30대와 주부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58) 이규태, 전계서, pp.59-60.

59) 정재권, 김동연, “한국인의 장애인 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1권, 전주 우석대학 특수교육연구소, 1988, pp.13-14.

또 최중옥⁶⁰⁾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복지정책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김동연⁶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시책이 장애인에 대한 자선적이고 자혜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졌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석동일⁶²⁾도 동일한 견해를 밝혔으며, 동시에 사회방위적인 입장과 사회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처우되어졌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자선적 입장이란 장애인을 불쌍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그 처우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위적인 입장에서의 처우는 장애인을 방치해 두면 빈곤, 범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인권에 제한을 가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사회적 시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을 처우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공리주의적인 입장은 장애인중에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자가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이나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시각 역시 장애인을 도구화 및 서열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인의 대책은 결국 일반인과는 다른 존재 또는 열등한 존재로 편견시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인간의 지향, 완전인간의 지향, 욕구불만의 전이, 초자아의 결여, 전통복지법의 해이 등의 요인으로

60) 최중옥, “정신박약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그 계몽교육방안에 관한연구”, 「부산대 사범대 교육논집」, Vol. 7, 1980, p.71.

61) 김동연, “한국인의 부정적 장애자 의식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7집, 1984, pp.25-32.

62) 석동일, “한국인의 장애자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제9집, 1988, pp.23-30.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었다고 파악되며, 서양에서도 역시 장애인을 조롱이나 학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고, 현대에 와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감정과 이성이 일치하지 않은 채 아직도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태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층,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자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접촉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⁶³⁾

장애인과의 접촉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를 살펴보면, 정선화(1996)가 인용한 Voeltz(1980)와 Kennon and Sandoval(1978)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동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의 일반아동이 접촉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⁶⁴⁾

이청자(1981)는 기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장애인과 접촉을 경험한 기업주가 그렇지 않는 기업주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Esposito Peach(1983)은 일반아동 9명과 장애아동 4명을 30주 동안 일주일에 한 시간씩 접촉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일반아동들은 장애아동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변화했고 장애아동 또한 사회적 행동이 크게 발달했다고 밝혔다.⁶⁶⁾

곽지영(1993)은 학교에서 장애아동과 접촉이 없을수록 장애아동에 대해

63) 이종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사회 복지 기관 자원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 성심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17.

64) 홍중미, "장애아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조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11.

65) 이청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인의 태도조사" 「재활연구」 삼육재활원. 1981, p.18.

66) 하승연, "장애아에 대한 태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9.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이종남(1994)은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과의 접촉이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활동대상, 장애인가족, 친지 등)은 친교의 거부나 접촉시 긴장요인과 같은 감정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력, 전공, 자원봉사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거부나 왜곡된 동일시와 같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임태민(1996)은 신문, TV 등 언론매체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통해 장애인을 알게 된 경우가 좀더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봉사경험 유무에서는 직접 봉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 연구도 있었지만 어떤 학문적 의의나 복지 실천적 의의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인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학문적 의의와 복지 실천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6.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의 태도

어떤 중증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의 인격적 존재이다. 장애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67) 홍중미, "장애아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조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23.

68) 이종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 성심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31.

69) 하승연 "장애아에 대한 태도증진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27.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이 오늘날의 모든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인 것이다.

장애가 기본 인간을 앞선다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태도는 극히 동정적이거나 냉소적이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경시할 뿐 아니라 이들을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미적 영역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는 개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 개개인이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나 사회 및 민간단체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제반 교육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떠나서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출생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사회집단에 속하게 되며, 점차 유흥집단, 이웃, 학교, 직업집단 등의 사회로 뻗어나가며 성장 발전하게 된다. 현대아동의 경우에는 생리적 발달과정보다 오히려 사회화과정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금지사항이 많으며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성숙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장애인 가족들의 열등감이나 불만이 문제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재활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애의 제약을 딛고 일어나 사

회화과정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사회적 성숙을 획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의 사회적 성숙의 필요를 깊이 느끼며, 잠재능력의 개발에 대한 책임의식을 굳게 해야 하겠다.

더 이상 장애인을 보호, 시혜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들도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기본권 및 평등참여의 보장을 확립하고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 3 장 결과 및 해석

제 1 절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사회복지사의 97%(‘아주관심있다 42%’ + ‘약간 관심있다 55%’)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갤럽에서 우리나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열명중 일곱명 이상(75,4%)의 응답자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었다(‘아주관심있다’ 13.5% + ‘약간 관심있다’ 61.9%) 이 결과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보다는 20%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업무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의지가 높다는 수치이며, 일반인과 사회복지사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식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석 될 수 있다.

<표 2>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아주 관심있다	28 (23.3)	22 (18.3)	50 (41.7)	75 (7.5)	60 (6.0)	135 (13.5)
약간 관심있다	30 (2.5)	36 (30.0)	66 (55.0)	355 (35.5)	264 (26.4)	619 (61.9)
그다지 관심없다	1 (0.8)	3 (2.5)	4 (3.3)	75 (7.5)	149 (14.9)	224 (22.4)
전혀 관심없다	-	-	-	-	22 (2.2)	22 (2.2)
무응답	-	-	-	-	-	-
계	59 (49.2)	61 (50.8)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2.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준

복지제도 수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표 3>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 82%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83.5%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지 못하다고 평가(‘그다지 되어 있지 못하다’ 53.3% +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30.2%)하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16.6%에 불과하였다.(‘아주 잘 되어 있다’ 0.9% + ‘약간 되어 있는 편이다’ 15.5%)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지도가 거의 비슷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아주 잘되어 있다	-	1 (0.8)	1 (0.8)	5 (0.5)	4 (0.4)	9 (0.9)
약간 되어있는 편이다	12 (10.0)	8 (6.7)	20 (16.7)	110 (11.0)	45 (4.5)	155 (15.5)
그다지 되어있지 못하다	60 (50.0)	31 (25.8)	91 (75.8)	233 (23.3)	300 (30.0)	533 (53.3)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	4 (3.3)	4 (3.3)	8 (6.7)	157 (15.7)	145 (14.5)	302 (30.2)
무응답	-	-	-	-	1 (0.1)	1 (0.1)
계	76 (63.3)	44 (36.7)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3. 각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사회생활 국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4-1>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우선 장애인이 보통사람에 비해 ‘취직, 월급, 승진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84%가 장애인 차별 대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일반인 95%가 장애인 차별대우를 매우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표 4-1> 장애인의 취직, 월급, 승진 등의 차별여부

(단위 : 명, %)

내 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52 (43.3)	49 (40.9)	101 (84.2)	500 (50.0)	450 (45.0)	950 (95.0)
아니다	8 (6.7)	7 (5.8)	15 (12.5)	3 (0.3)	42 (4.2)	45 (4.5)
무응답	3 (2.5)	1 (0.8)	4 (3.3)	2 (0.2)	3 (0.3)	5 (0.5)
계	63 (52.5)	57 (47.5)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또한 장애인의 ‘문학, 그림, 음악 등의 예술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 4-2>와 같이 긍정률이 49.8%, 부정률이 49.1%로 평가가 반반으로 나뉘었으나 사회복지사들의 조사결과에서는 82%가 긍정을 해 의외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사회 참여 활동 장애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 4-2> 장애인의 예술분야 활동정도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40 (33.3)	58 (48.4)	98 (81.7)	297 (29.7)	201 (20.1)	498 (49.8)
아니다	8 (6.7)	10 (8.3)	18 (15.0)	202 (20.2)	289 (28.9)	491 (49.1)
무응답	4 (3.3)	-	4 (3.3)	6 (0.6)	5 (0.5)	11 (1.1)
계	52 (43.3)	68 (56.7)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률이 18.9%로 낮았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률이 48.35% 부정률이 48.3% 반반으로 나뉘었다.

<표 4-3>과 같이 아직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표 4-3> 장애인이 사회 각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도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38 (31.7)	20 (16.6)	58 (48.3)	110 (11.0)	80 (8.0)	190 (19.0)
아니다	19 (15.8)	39 (32.5)	58 (48.3)	390 (39.0)	412 (41.2)	802 (80.2)
무응답	4 (3.3)	-	4 (3.3)	5 (0.5)	3 (0.3)	8 (0.8)
계	61 (50.8)	59 (49.1)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4. 향후 장애인이 될 가능성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고 항상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도 37.3%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의 응답자 중 63%가 해본 적이 있고 항상 느끼고 있었고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에 불과해 일반국민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잠시 해 본적이 있으나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다 라는 응답은 30%를 보여 일반인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응답자 자신이나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7%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24.5%), ‘생각은 해봤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38.2%)

<표 5>와 같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아직 대다수의 일반

인은 장애 원인이 선천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장애원인이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 연대의식 .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향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해 본 적이 있고 항상 느낀다	41 (34.2)	35 (29.1)	76 (63.3)	157 (15.7)	216 (21.6)	373 (37.3)
잠시 해본 적이 있으나 그 럴 리가 없다고 믿는다	26 (21.7)	10 (8.3)	36 (30.0)	298 (29.8)	84 (8.4)	382 (38.2)
해본 적이 없다	3 (2.5)	5 (4.2)	8 (6.7)	50 (5.0)	195 (19.5)	245 (24.5)
계	70 (58.4)	50 (41.6)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5. 장애인 문제해결 위한 변화주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일반인이 변해야 한다가 64%,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접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보여지는 문항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갤럽에서는 일반인(비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86.4%로 그 반대 의견(12.5%)보다 훨씬 우세했다.

<표 6> 장애인 문제해결 위한 변화주체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일반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50 (41.7)	26 (21.6)	76 (63.3)	434 (43.4)	430 (43.0)	864 (86.4)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10 (8.3)	18 (15.0)	28 (23.3)	65 (6.5)	60 (6.0)	125 (12.5)
무응답	8 (6.6)	8 (6.6)	16 (13.3)	6 (0.6)	5 (0.5)	11 (1.1)
계	68 (56.7)	52 (43.3)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6. 장애인 이미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표 7>과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응답은 사귀기 힘들다가 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순수하다 16%, 자기 멋대로 한다 13% 의뢰심이 강하다 11%, 예의바르다 2%로 본 연구에서 일반인과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응답에서 일반인과 사회복지사의 시각이 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지적이 가장 높았다(32.1%).

그 다음으로는 ‘사귀기 힘들다’26.7%, ‘순수하다’23.4% ‘자기 멋대로 한다’6.2% ‘예의가 바르다’, ‘의뢰심이 강하다’가 각각 4.1%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선 전문가의 고충을 직감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최일선의 사회복지사를 너무 믿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과 과잉 반응들에서 오는 괴리라고 생각한다.

<표 7> 장애인 이미지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예의바름	-	2 (1.7)	2 (1.7)	21 (2.1)	20 (2.0)	41 (4.1)
자기 멋대로 함	5 (4.2)	10 (8.3)	15 (12.5)	32 (3.2)	30 (3.0)	62 (6.2)
순수하다	12 (10.0)	8 (6.7)	20 (16.7)	117 (11.7)	117 (11.7)	234 (23.4)
자존심이 강함	7 (5.8)	10 (8.4)	17 (14.2)	180 (18.0)	141 (14.1)	321 (32.1)
의뢰심이 강함	3 (2.5)	10 (8.3)	13 (10.8)	10 (1.0)	31 (3.1)	41 (4.1)
사귀기 힘들다	18 (15.0)	11 (9.2)	29 (24.2)	133 (13.3)	134 (13.4)	267 (26.7)
기타	7 (5.8)	8 (6.7)	15 (12.5)	3 (0.3)	12 (1.2)	15 (1.5)
무응답	4 (3.3)	5 (4.2)	9 (7.5)	10 (1.0)	10 (1.0)	20 (2.0)
계	56 (46.7)	64 (53.3)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제 2 절 장애인에 대한 경험 및 태도

1. 장애인을 도와준 경험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8.3%로 우리 일반국민의 다섯 명 중 네 명 정도는 장애인 원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의 종류로는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자리양보’가 4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모금/기부를 한 경우(43.2%), 횡단보도/계단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17.1%)’ 의자(차)를 밀어준 일(12.2%), 모금, 기부 이외의 금전적 경제적 원조’ (11.4%), ‘말동무 해준 일’ (10.6%)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사들의 <표 8-1>, <표 8-2>, <표 8-3>과 같은 응답은 일반인과 매우 흡사하였다. 이는 매우 희망적이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표 8-1> 버스, 지하철 등에서 자리 양보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20 (16.7)	11 (9.1)	31 (25.8)	251 (25.1)	209 (20.9)	460 (46.0)
아니다	40 (33.3)	48 (40.1)	88 (73.3)	-	-	-
기타	-	-	-	254 (25.4)	286 (28.6)	540 (54.0)
무응답	1 (0.8)	-	1 (0.8)	-	-	-
계	61 (50.8)	59 (49.2)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표 8-2> 모금이나 기부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50 (41.7)	32 (26.6)	82 (68.3)	302 (30.2)	130 (13.0)	435 (43.5)
아니다	20 (06.4)	17 (14.2)	37 (30.8)	-	-	-
기타	-	-	1 (0.8)	203 (20.3)	365 (36.5)	568 (56.8)
무응답	1 (0.8)	-	1 (0.8)	-	-	-
계	71 (59.2)	49 (40.8)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표 8-3> 횡단보도/계단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39 (32.5)	32 (26.7)	71 (59.1)	151 (15.1)	20 (2.0)	171 (17.1)
아니다	30 (25.0)	18 (15.0)	48 (40.0)	-	-	-
기타	-	-	-	354 (35.4)	475 (47.5)	829 (82.9)
무응답	1 (0.8)	-	1 (0.8)	-	-	-
계	70 (58.3)	50 (41.7)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2. 장애의 선천성에 대한 견해

사회복지사들은 선천적(8%)인 원인보다는 후천적(84%)으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장애를 선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보다 (24.4%)는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74.4%)가 <표 9>와 같이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발달된 산업 문명과 문명의 이기 속에서 날로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볼 때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 발생 예방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표 9> 장애의 선천성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그렇다	2 (1.6)	7 (5.9)	9 (7.5)	124 (12.4)	120 (12.0)	244 (24.4)
아니다	79 (65.8)	23 (19.2)	102 (85.0)	376 (37.6)	368 (36.8)	744 (74.4)
무응답	1 (0.8)	8 (6.7)	9 (7.5)	5 (0.5)	7 (0.7)	12 (1.2)
계	82 (68.2)	38 (31.8)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3.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평가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10>과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의견이 53%,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41.9%로 나타났는데 일반국민들의 응답 또한 각각 45.9%, 42.4%로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고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율이 25% 수준에 머물어 있는 것은 인식 문제보다는 장애인의 능력이나 고용주의 태도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능력증진과 고용주 태도변화에 주력한다면, 의무고용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평가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0.8)	4 (3.4)	5 (4.2)	50 (5.0)	61 (6.1)	111 (11.1)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35 (29.2)	14 (11.6)	49 (40.8)	220 (22.0)	204 (20.4)	424 (42.4)
함께 일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40 (33.3)	24 (22.0)	64 (53.3)	229 (22.9)	230 (23.0)	459 (45.9)
무응답	2 (1.7)	-	2 (1.7)	6 (0.6)	-	6 (0.6)
계	78 (65.0)	42 (35.0)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제 3 절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

1.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지 여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보여주듯이 <표 11>과 같이 100%의 인지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수준을 알아본 결과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의 90.2%가 알고 있었으나, '장애인 고용 의무제'와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인지수준은 75%정도였으며,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32.5%, '장애인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27.6%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 수준을 나타냈다.

<표 11 > 장애인 복지제도의 인지 여부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알고 있다	62 (51.7)	58 (48.3)	120 (100.0)	394 (39.4)	370 (37.0)	764 (76.4)
모른다	-	-	-	111 (11.1)	125 (12.5)	236 (23.6)
계	62 (51.7)	58 (48.3)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2.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필요 여부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일반인보다 조금 수치가 높았을 뿐 양자 모두가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과 변화의 움직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현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장애인 재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의 95.5%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는 전체의 94%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3. 미래의 장애인 대책 전망

사회복지사의 응답을 들은 결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92%, '현재와 변함없다' 5% '더 나빠질 것이다' 2%로 <표 12>와 같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질문에 12.3%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전망은 밝은 것으로 진단된다.

일반인들도 현재의 장애인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더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79.7%로 가장 높아 일반국민들은 장애인 대책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19.8%였고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0.5%에 불과했다.

<표 12> 미래의 장애인 대책 전망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더 좋아질 것이다	59 (49.2)	52 (43.3)	111 (92.5)	399 (39.9)	398 (39.8)	797 (79.7)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다	4 (3.3)	2 (1.7)	6 (5.0)	106 (10.6)	92 (9.2)	198 (19.8)
더 나빠질 것이다	1 (0.8)	1 (0.8)	2 (1.7)	-	5 (0.5)	5 (0.5)
무응답	1 (0.8)	-	1 (0.8)	-	-	-
계	65 (54.2)	55 (45.8)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4. 바람직한 장애 아동의 교육방법

장애 아동의 대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은 <표 13>과 같이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특수교,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0.8%로 가장 높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보통학교에서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7%.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특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0.8%로 전반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표 13> 바람직한 장애아동의 교육 방법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보통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40 (33.4)	16 (13.4)	56 (46.7)	117 (11.7)	100 (10.0)	217 (21.7)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특별한 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구분한다	30 (25.0)	31 (25.8)	61 (50.8)	353 (35.3)	331 (33.1)	684 (68.4)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	1 (0.8)	1 (0.8)	35 (3.5)	63 (6.3)	98 (9.8)
무응답	1 (0.8)	1 (0.8)	2 (1.7)	-	1 (0.1)	-
계	71 (59.2)	49 (40.8)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반면, 일반인들의 응답은 각각 68.45%, 21.7%, 9.8%로 전문가들은 장애 학생을 통합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재활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된다.

5. 바람직한 장애인 보호의 주체

장애인을 보살피는 일을 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본 결과, ‘가족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12%)는 의견보다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하는 것이 좋다(85%)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국가나 공공단체 중심으로 56.3% 가족중심으로 42.9% 사회복지사는 무려 28.7%의 의견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표 14>에서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표 14> 장애인의 보호주체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가족 중심으로	10 (8.4)	4 (3.3)	14 (11.7)	215 (21.5)	214 (21.4)	429 (42.9)
국가나 공공단체 중심으로	62 (51.7)	40 (33.3)	102 (85.0)	290 (29.0)	273 (27.3)	563 (56.3)
무응답	1 (0.8)	3 (2.5)	4 (3.3)	-	8 (0.8)	8 (0.8)
계	73 (60.9)	47 (39.1)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6. 장애인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유

<표 15>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견해는 장애인의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고용자(경영자)의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직장시설 부족’(16%), ‘장애인에게

<표 15> 장애인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

내용	사회복지사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부족	3 (2.5)	10 (8.3)	13 (10.8)	20 (2.0)	16 (1.6)	36 (3.6)
고용자의 이해 부족	29 (24.2)	25 (20.8)	54 (45.0)	251 (25.1)	200 (20.0)	451 (45.1)
직장시설이 장애인을 위해 되어있지 않다	8 (6.7)	12 (10.0)	20 (16.7)	144 (14.4)	150 (15.0)	294 (29.4)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	6 (5.0)	5 (4.2)	11 (9.2)	65 (6.5)	67 (6.7)	132 (13.2)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못하다	-	2 (1.7)	2 (1.7)	20 (2.0)	39 (3.9)	59 (5.9)
출퇴근이 곤란하다	1 (0.8)	2 (1.7)	3 (2.5)	5 (0.5)	23 (2.3)	28 (2.8)
기타	2 (1.7)	1 (0.8)	3 (2.5)	-	-	-
무응답	4 (3.3)	10 (8.4)	14 (11.7)	-	-	-
계	53 (44.2)	67 (55.8)	120 (100.0)	505 (50.5)	495 (49.5)	1,000 (100.0)

적합한 일 부족’(9%)교육이나 직업훈련의 부족(11%)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의 결과에서도 각각 45%, 29.4%,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 13.2%로 나타났다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과의 접촉 및 장애인 관련 활동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회복지사와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와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경험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 보았다.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10개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쁜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늘푸른나무 정신지체인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강서구청과 22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20명을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 빈도, 백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서 일반국민은 75.4%, 사회복지사는 97%인 것을 볼 때 일반국민의 관심도도 높지만 사회복지사는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업무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수치로 이해되며, 또한 일반인과 사회복지사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장애인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 나라 복지제도 수준 응답 결과를 보면 일반인 83.5%, 사회복지사 82%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정착적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응답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직, 월급, 승진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반인 95%, 사회복지사 84%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편견과 멸시의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개선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장애인이 될 가능성 여부에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고 항상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도 37.3%에 달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응답자 중 63%가 해 본적이 있고 항상 느끼고 있었고 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에 불과해 일반국민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잠시 해 본적이 있으나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다 라는 응답은 30%를 보여 일반인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응답자 자신이나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7%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24.5%), '생각은 해봤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38.2%)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아직 대다수의 일반인은 장애 원인이 선천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장애원인이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 연대의식,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는 일반인이 변해야 한다(64%),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23%)로 나타났다. 그러나 갤럽에서는 일반인(비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응답(86.4%)이 그 반대의견(12.5%)보다 훨씬 우세했다.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가 사회복지사들은 2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을 접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보여지는 문항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 장애인 이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하다(32.1%), 사귀기 힘들다(26.7%), 순수하다(23.4%)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응답은 사귀기 힘들다(23%), 순수하다(16%), 자존심이 강하다(14%)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인과 사회복지사 모두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장애인은 '순수하다'라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보듯이 장애인은 그 자신에 처한 환경의 변화에 그 때마다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 보다는 결여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인지해야 하겠다.

7) 장애인을 도와준 경험을 물어본 결과,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8.3%로 우리 일반국민의 다섯 명 중 네 명 정도는 장애인 원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의 종류로는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자리양보'가 4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모금/기부를 한 경우(43.2%), 횡단보도/계단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17.1%)의자(차)를 밀어준 일(12.2%), 모금, 기부 이외의 금전적 경제적 원조(11.4%), '말동무 해준 일'(10.6%)등의 순이었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응답이 일반인과 매우 흡사하였다. 이는 매우 희망적이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8) 장애의 선천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선천적(8%)인 원인보다는 후천적(84%)으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장애를 선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보다(24.4%)는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74.4%)가 3배 가량 많이

나타났다. 앞으로 발달된 산업 문명과 문명의 이기 속에서 날로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볼 때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 발생 예방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9)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평가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함께 일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의견이 53%,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41.9%로 나타났는데 일반국민들의 응답 또한 각각 45.9%, 42.4%로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고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율이 25% 수준에 머물어 있는 것은 인식 문제보다는 장애인의 능력이나 고용주의 태도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능력증진과 고용주 태도변화에 주력한다면, 의무고용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0) 장애인 복지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현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갤럽 조사에서는 일반인 응답자중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의 95.5%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는 전체의 94%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일반인보다 수치가 높았을 뿐 양측 모두가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11)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일반인보다 조금 수치가 높았을 뿐 양자 모두가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과 변화의 욕구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현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장애인 재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의 95.5%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는 전체의 94%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전반에

절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12) 미래의 장애인 대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응답을 들은 결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92%, '현재와 변함없다' 5% '더 나빠질 것이다' 2%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12.3%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전망은 밝은 것으로 진단된다. 일반인들도 현재의 장애인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더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79.7%로 가장 높아 일반국민들은 장애인 대책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19.8%였고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응답이 0.5%에 불과했다.

13) 장애 아동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생각은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특수교,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0.8%로 가장 높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보통학교에서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7%.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0.8%로 전반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가능하면 함께 교육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인들의 응답은 각각 68.45%, 21.7%, 9.8%로 전문가들은 장애 학생을 통합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재활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된다.

14) 바람직한 장애인의 보호 주체는 누가 해야 하는가?

일반인은 국가와 공공단체(56.3%)가족중심(42.9%)으로 응답했으나, 사회복지사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호해야한다 가 85%로 무려 28.7%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응답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연대의식,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사하는바가

크며 이를 바탕으로, 재활문제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15) 장애인이 취직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고용인(경영자)의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 일반국민 45%, 사회복지사 44%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최고경영자의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용 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이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높았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면으로 이들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의 보호주체를 국가나 공공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응답한 절대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태도를 볼 때 장애인복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주체를 묻는 질문의 응답에서 보았듯이 장애인들의 변화를 바라는 사회복지사의 응답도 중요한 부분이다. 즉, 울펜스버그(wolfensberger)가 지적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장애인의 능력증진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를 위한 정부와 전문가, 장애인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하겠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반인

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둘째, 장애인과의 직·간접 경험 모두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과 최일선에서 접촉한 사회복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국내 문헌

- 고영복, 『현대사회 심리학 이론』, 서울 : 법문사, 1979.
- 권선진, 『재활복지』,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998.
- 김동연, “한국인의 부정적 장애인 의식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7집, 1984.
- 김선중, 『속담, 우리 민속문화의 이해』 개문사, 1980.
- 나운환, 『장애인 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2000.
- 문동팔, 『초등학생의 동화책 독후감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연구』, 장애인 재활재단, 1999.
- 박종대,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사회 공통선의 실현을 위한 모색”,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4, 1995. 12.
- 석동일 “한국인의 장애인 의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제9집, 1988.
- 이규태, 『장애인 복지에 대한 한국인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인 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 이익섭, 『한국장애인 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장애인 복지』, -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90.
- 이청자 『재활연구』, 삼육재활원, 1981.
- 이태영, 『올바른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대책』, 「제2회 장애인 복지 세미나」, 한국어린이 재단 전북지부, 1983.
- 정우철, 『교육사회학연구』 서울:교육과학사, 1992.

학위 논문

- 곽재복,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과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류수경, “장애동료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문동팔, “장애인의 이미지 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사자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6.
- 박경희,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성희선, “장애자의 전인재활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송용석, “지체 부자유아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전주우석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연구”, 「대구 대학교 논문집」 제 2집.
- 엄익곤, “지체장애인 심리적 재활을 위한 성격 및 가치관 분석”, 대구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이종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기관의 자원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정희, “사회교육 관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하승연, “장애아에 대한 태도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상담 전공’. 1996.

허혜영, “척추 장애자의 재활에 있어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사회 사업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홍중미, “장애아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조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1997.

국외 문헌

B.G Esposito, & W.J.Peach,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49, 1983.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1958, p.14-15

George Handerson, Willie V. Bryan, "Psychsocial Aspects of Disability", Charles C Tomas Publisher, 1984, pp.31-44.

H. A, Rusk., "Rehabilitation medicine", Saint Louis, The C. V Mosby Co., 1997, p.626.

Honach Livneh, "The Disability Factor scale-general" : second-order factor structure, 1983

Handler A, & Austin K, "Improving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 Their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46, 1980.

M.A., Smolock, "The Nurse's Role in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 child",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5, No.3, 1970 p.413, Rothberg, J.S., "Symposium on chronic disease and Rehabilitation",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1, No.3, 1996, p.353

M. J. Rosenberg, "Con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 of Social Psychology*, 1956, 53, 367

R.H. Goldens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Handbook", N.Y. : McGrawHill, Inc., 1978, p37

T.W.Jones, V.M. Sowell, J.K.Jone, & L.G.Butler, "Changing Children's Perception of Handicapped people", *Exceptional Children* 47,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Focused on the Social Workers in Kangsuh-ku, Seoul-

Lee, Hak-beom

Major in Social Welfare

Dep.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social worker and the general public toward them under the premise that contact with them and activity relate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y would have an effect on the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For this purpose,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normal person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through the descriptive study and its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to inquire into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social worker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through empirical research and study.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for social welfare workers working in 10 social welfare centers located in Kangsuh-ku, Seoul, the

Comprehensive Welfare Center for our glad Persons with disability people, the Comprehensive Welfare Center for evergreen-like mentally handicapped, and the Comprehensive Welfare Center for the aged and specialized social welfare personnel in 22 Dong Offic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imple frequency and percentage by using the Windows SPSS applied in the research method for social sciences.

Base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seeing that 75.4% of the general people and 97% of the social workers took an active interest in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nd their problem, the former might have a high interest, but the latter showed a higher interest in them.

Second, seeing the results of responses to the level of the welfare system in Korea, 83.5% of the general people and 82% of the social workers made a negative evaluation of it.

Third, as for the question asked about the awareness of the social problem, it was found that 95% of the general people and 84% of the social workers had a strong posture of prejudice and disregard concerning unfavorable treatment in terms of employment, monthly salary and promotion.

Fourth,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ed to the question of 'which of both should be actively change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or the Persons with non-disabilit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or the social workers responded that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changed(63%) an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should be actively changed(23%).

Fifth,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people responded to the imag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n orders of 'They have a strong self-pride'(32.1%), 'It is difficult to make friends'(26.7%), and 'They are pure'(23.4%), whereas the social workers responded to it in orders of 'It is difficult to make friends'(23%), 'They are pure'(16% and 'They have a strong self-pride'(14%).

Sixth,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question of experiences in helping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s a result, 73.8% of the subjects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s in helping the Persons with disability. That is, it was found that 4 of 5 general people had experiences in helping the Persons with disability.

Seventh, in evaluating the attitude of the general people toward working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how the social worker thought about working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y. 53% of them responded that 'it is worth welcoming to work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nd 41.9% pointed out that 'It is better to work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n the long run though there may be some problem. '45.9% and 42.4% of the general people showed a very positive response, respectively.

Eighth, as for whether there was a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there was a slight numerical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The group of the social workers showed a slightly higher numerical level of the need than that

of the general people. Both of the groups keenly felt a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system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s well as a high interest in it.

Ninth, as for the question on the prospect of the future measur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92% of the social workers responded that 'It would become better', followed by 'It would remain unchanged'(5%) and 'It would become worse'(2%).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the prospect of the welfare system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will be bright.

Taken together, the group of the social workers having frequent contact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n the nearest distance had a higher awareness of and attitudes tow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y than that of the general people. Especially, they pointed out that the polic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was not enough. This is very positive in terms of the specialist who provide direct welfare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helpful in improving the awareness by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Persons with disability. Especially, seeing that an absolute majority of the social workers responded that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as the primary agent of protecting the handicapped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welfar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s very hopeful.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여론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이 질문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정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장애인 복지에 기초가 되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복지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 나운환

연구자 : 이학범

SQ) 성 별 : 1. 남자 2. 여자

문1) 선생님께서는 평소 장애인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1. 아주 관심있다.
2. 약간 관심있다.
3. 그다지 관심없다.
4. 전혀 관심없다.

문2)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되어 있다.
2. 약간 자 되어 있는 편이다.
3. 그다지 되어 있지 못하다.
4.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

문3)-1 장애인은 취직, 월급, 승진등의 점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O, X)

-2 장애인일지라도 문학, 그림 등 예술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O, X)

-3 장애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O, X)

문4) 선생님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5) 선생님 자신은 지금까지 큰 상처를 입거나 병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6) 선생님 또는 선생님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해본 적이 있고 항상 느끼고 있다.
2. 잠시 해 본 적이 있으나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
3. 해 본 적이 없다.

문7) 선생님은 일상생활중,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의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까? 길에서 장애인과 마주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1-3명
2. 4-5명
3. 6-7명
4. 8-10명
5. 10명 이상
6. 만나지 않는다.

문8) 선생님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장애인을 만난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 더 친근감이 느껴졌다.
2. 더 거리감이 느껴졌다.
3. 별 변화가 없었다.

문9) 가족이나 친척, 주위의 아는 사람은 별도로 하고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단, 공공단체의 직원으로서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서 한 것은 제외

1. 버스/지하철 등에서 자리 양보
2. 횡단보도나 계단 등에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준 일
3. 의자를 밀어 준 일
4. 가사나 물건 사기를 도와 준 일
5. 목욕이나 몸을 돌봐준 일
6. 말 동무를 해준 일
7. 수화나 글을 읽어주는 등의 봉사활동
8. 모금이나 기부
9. 모금활동
10. 모금, 기부외의 금전적, 경제적 원조
11. 기타(적을 것 :)

문10) 선생님께서는 “장애”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생기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선천적으로 생긴다.
2. 후천적으로 생긴다.

문11) 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또는 100명 중 몇 명이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

문12)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의 재활시설”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문13) <문 12에서 “알고 있다”에 응답한 응답자만> 그러면 “장애인의 재활시설”이 “현재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장애인의 재활 시설

(안다/모른다)

(현재그대로가 좋다/개선의 필요가 있다_)

2.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특별 수당

(안다/모른다)

(현재그대로가 좋다/개선의 필요가 있다)

3.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공공) 주택

(안다/모른다)

(현재그대로가 좋다/개선의 필요가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특별 학교

(안다/모른다)

(현재그대로가 좋다/개선의 필요가 있다)

5.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안다/모른다)
(현재그대로그가 좋다/개선의 필요가 있다)

문14) 그럼,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장애인 대책이 미래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더 좋아질 것이다.
2. 현재와 변함없다.
3. 더 나빠질 것이다.

문15)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장애인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반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2.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문16) 선생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특별한 학교와 일반 학교를 구분하여 공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장애이건간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 애들만 모아 특별한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보통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2.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특별한 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장애의 정도나 종류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문17)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능률면이나 동료로서 합치되기 어려우므로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결국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3.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함께 일하는 것은 환영 할만 한 일이다.

문18) 의학의 발달로 장애의 종류에 따라 태아의 단계가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1. 장애가 있더라도 낳는다.
2.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중절한다.

문19)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을 보살피는 것은 주로 누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능한 한 가족 중심으로
2. 가능한 한 국가나 공공단체 중심으로

문20) 선생님께서는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는 장애인의 취직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별로 어렵지 않다.
2. 약간 어렵다.
3. 아주 어렵다.

문21) <문20에서 2,3번을 응답한 응답자만> 장애인이 취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취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가장 그런
것 같은 것을 하나만 지적해 주십시오.

1.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부족
2. 고용자(경영자)의 이해부족
3. 직장 시설이 장애인을 위해 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부족하다.
5.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잘 되지 못할 것이므로
6. 출/퇴근이 곤란하다.
7. 기타 (적을 것 :)

문22) 선생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의가 바르다.
2. 자기 멋대로 한다.
3. 순수하다.
4. 자존심이 강하다.
5. 의뢰심이 강하다.
6. 사귀기 힘들다.
7. 기타(적을 것 :)

문23) 우리는 길에서 또는 전철 등의 장소에서 장애인을 빙자하여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빙자한 구걸 행위가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영향을 미친다.
2. 다소 영향을 미친다.
3. 별로 영향이 없다.
4. 전혀 영향이 없다.

문24) 10년 전에 비해 요즘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더 좋아졌다. 2. 더 나빠졌다. 3. 비슷하다.

문25)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먼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본 조사 이전에 ‘장애인 먼저’운동에 대해서 듣거나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26) <문25에서 2번을 응답한 응답자만>

선생님께서서는 다음의 로고를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27) <문26에서 1번을 응답한 응답자만>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1. TV 2. 신문 3. 잡지 4. 현수막/입간판/포스터
5. 공공장소(은행, 공공기관 등)
6. 차량내(전철, 버스, 택시 등)
7. 기타(적을 것 :)

문28) <문27에서 1번을 응답한 응답자만>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장애인 먼저”운동의 활동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인 먼저”실천 문화 이벤트
2. 장애인과 인연 맺기 사업
3. “장애인 먼저”실천 모범 단체상
4. 세미나 및 여론조사
5. 캠페인성 홍보물 제작 배포
6. “장애인 먼저”실천 교육, 훈련 실시
7. 장애인 소재 영화 제작
8. 기타(적을 것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